



열창하는 임실 마미스 합창단. 임실 마미스 합창단은 인생의 황혼기를 음악과 함께 보내면 더 아름답고 풍요롭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무대에 올랐다.



합창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벨라보스 여성합창단. 이들은 따뜻하고 밝은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합창이라는 도구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따뜻한 하모니로 초겨울을 녹이다

온가족이 즐기는 축제 전환코자 어린이 합창단 2팀도 참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수칙 준수한 채 치러져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봉성 대표.



사회를 맡은 정의갑씨.



축하무대에 나선 이태원씨.

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사)전북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제5회 전라북도 아리울 아버지 합창제 가 지난 4일 오후 4시, 전주 바울센터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됐다.
전라북도 아리울 아버지 합창제는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 지향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로, 이번 합창제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전환하고자 어린이 합창단도 참여했다.
전주 소년소녀합창단, 벨라여성합창단, 임실 마미스 합창단, 아트피아 어린이합창단, 익산 코러스 앙상블, 벨라보스 여성합창단 등 총 6팀이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무대로 초겨울을 녹였다.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 "이번 합창제의 주인공인 도내 합창단 여러분들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치러졌다. /김재훈 기자



귀여운 율동으로 박수를 받은 아트피아 어린이합창단. 이들은 맑고 아름다운 합창음악을 통해 사랑을 키워가며 성장하고 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벨라여성합창단. 이들은 노래로 하나되고 음악을 사랑하는 30~40대 여성들로 구성돼 있다.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실버 합창단 익산 코러스 앙상블.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는 익산 코러스 앙상블 단원.



뮤지컬 메들리로 눈길을 끈 전주 소년소녀합창단.